

WTO 제5차 각료회의 저지를 위한 멕시코 원정 투쟁

- 미국·EU의 대장노릇 국제연대투쟁으로 막아낼 것
- 개인적으로 막대한 재정적·시간적 부담을 감수하며 시작하는 결연한 국제투쟁

한 농연을 비롯하여 전국농민연대 참가 단체는 오는 9월 10일부터 14일까지 멕시코 칸쿤에서 개최될 'WTO 제5차 각료회의' 저지를 위한 국제규모의 연대투쟁에 합류한다. 한창 가을걷이로 바쁜 농번기이지만 이번 제5차 각료회의 결과가 앞으로 우리농업에 얼마나 큰 악영향을 미칠지 너무도 잘 알고 있기에 우리 농민들이 직접 투쟁의 대오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 WTO협상의 심상치 않은 분위기

당초 개도국과 한목소리를 내며 농산물수입국에 힘을 실어주던 유럽연합(EU)은 미국의 이라크 침공사건 이후 서서히 꼬리를 내리며 줄대기에 나서고 있다. 개도국의 유일한 우군으로 인식했던 EU의 입장선회는 개도국들에게 적지 않은 충격이며, 향후 WTO협상이 미국과 EU간 밀실협상으로 굳혀질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칸쿤에서 두쪽은 무역자유화계획을 받아들이도록 개도국들에 공동전선을 펼칠 공산이 크다. 이미 우리농업에 대한 국제적 여론은 불리하게 조

성되어 가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해 농업부문을 포함한 한국 경제의 전반적 수준을 선진국으로 분류해 놓은 것이 뒤늦게 밝혀졌으며, 1인당 국민소득 1만불 등을 거론하며 한국 농업에 대한 개도국지위 유지에 불편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 더 이상 물러설 자리가 없다.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에서 개도국지위를 받았는데도 지금까지 농업은 현상유지는커녕 급속도로 악화일로로 치달았다. 현재 국내농업은 UR 당시보다 더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어 개도국지위를 받지 못한다면 그야말로 한국농업은 풍전등화의 위기를 피할 수가 없을 것이다.

□ 국제규모의 연대투쟁을 통한 농업불가침 촉구

한농연을 비롯한 전국농민연대는 국내의 다른 시민·사회운동 단체들과 함께 '현지투쟁단'으로서 멕시코 현지에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가기로 결의했다. 현지투쟁단은 우선 인민포럼에 참가하며 국제NGO와 일정을 공유할 예정이며, 사전에 ID카드를 발급 받은 대표단은 각료회의장의

협상 과정을 감시하게 된다. 멕시코 내에서도 멕시코 농민단체인 '전국 자율농민조직 연합' 과 전 세계 농민연합체인 '비아 캄페시나' 가 이끄는 1만 명의 농민들이 세계무역기구의 농업협상 중단을 요구하는 시위행진을 벌일 예정이다. 연합단체인 '에스파시오 메히카노' 는 현지에서 일주일 동안 '인민포럼' 을 개최할 예정이며, 이 행사의 절정은 9월13일 전세계 다른 도시에서도 동시에 열리는 '세계화와 전쟁 반대' 를 주제로 한 행진이 될 것이다. WTO협상에 대응한 투쟁은 이렇게 국제적 연대투쟁으로 추진되어 칸쿤 주민의 5% 수준인 1만5천명의 시위대가 칸쿤에 모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9월13일에 발맞춘 '범국민대

회' 가 추석연휴를 피해 6일 서울 서대문공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 칸쿤 투쟁단의 현지 활동

칸쿤 투쟁단의 현지 일정은 400만농민의 대표단이라는 책임감과 사명감을 바탕으로 상당히 바쁜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먼저, 투쟁단은 칸쿤에서 진행되는 농민연대의 활동을 국내 언론 및 인터넷에 적극 홍보하기 위해 농민연대 기자단(취재,사진)을 구성하여 운영하며, 국내 상황실은 홈페이지(한농연)를 활용하여 운영하는 등 정책·정보활동을 통해 국내·외적 여론형성에 주력하게 된다.

● 국제 민중포럼

날 짜	참가단 활동	칸쿤국제민중포럼활동	비 고
9월 6일	출국/기자회견		
8일	현지도착 -참가단인사 및 숙소배정	"세계사회운동 회의" 총회 여성/의원 포럼	
9일	포럼개회식참가	민중포럼개회식 - 문화제, 포럼, 발언 여성/의원/농민/원주민/산림 포럼	
10일	포럼활동 참가 참가단 홍보활동 및	"농업"총회 -NAFTA사례, 비아캄페시나, 식량주권 등 농민/원주민/산림 포럼	각료회의시작
11일	자체프로그램	"무역과 전쟁"총회	
12일		"서비스사유화"총회	
13일	참가단 결의대회 시위 참가	시위	
14일		"환경·종다양성, 자연자원" 총회 민중포럼 폐회식 -활동보고, 향후계획공유, 문화제 등	폐 막
15일	귀국		
16일	서울 도착		

또한, 투쟁단은 영문홍보물, 영문현수막 등의 시위용품과 개별 단체별 홍보물을 제작하여 선전·홍보활동을 하게 되며, 보도자료 작성, 기자회견, 정부대표단 미팅, 참가단 결의대회, 국제민중포럼 참여, 가두집회 등 전체적으로 빠박한 일정을 소화해 내야 한다.

□ 칸쿤 현지투쟁이 갖는 의미

전국농민연대 차원에서 멕시코 칸쿤으로 출발하는 투쟁단은 총 70여명이며 한농연은 서정의

중앙연합회장을 비롯하여 각도연합회 임원 등 총 17명이 합류할 예정이다. 집회 참여인원만을 고려해 볼 때 17명은 결코 많은 숫자가 아니지만, 해외원정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적은 숫자도 아니다. 또한, 개인별로 소요되는 경비도 대략 250여만원인 점을 고려한다면 투쟁단의 원정경비는 대략 1억7천만원이 넘는다.

얼마전 농민신문에는 이런 소요비용과 시간적 문제 등을 거론하며 현지투쟁단을 비꼬는 논설을 게재한 적이 있다. 농업계의 전문지 중 독보적인 언론의 기사 내용이 지극히 수준 이하의 비아냥으로 점철되어 있었다는 사실에 농민들은 실소를 금할 수가 없었다. 과연 농민단체의 칸쿤 원정투쟁이 비난받아야 할 일인가? 현지투쟁단 참가자 대부분이 바쁜 일손을 뒤로하고 손해를 감수하면서 자부담으로 투쟁의 대열에 함께 하겠다는 결의가 일개 논설위원의 비아냥거리로 게재될 수 있는 것인지 오히려 반문하고 싶다. 이번에 출발하는 현지투쟁단은 400만농민을 대표하여 현지에서 직접적인 압박투쟁을 전개할 '돌격대'인 셈이다. 사안 자체가 국제적 연대를 필요로 하고 국제연대의 힘을 바탕으로 강대국의 일방주의에 정면으로 대응함으로써, 개도국의 농업을 수호하고 초국적자본주의에 확실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국내에서도 여론을 형성하고 투쟁의 힘을 얻는데 있어 칸쿤 현지투쟁은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한농연과 400만 농민들은 현지투쟁단이 귀국하는 그 날까지 칸쿤 현지에서 최선을 다해 의연히 맞서 싸울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격려와 찬사의 박수를 보낸다. 한농연

● 하루일정

- 7:00
_____ 기상
- 8:00 ~ 9:00
_____ 집결 / 시작총화 / 아침식사
- 9:00 ~ 12:00
_____ 행사참가
- 12:00 ~ 13:00
_____ 점심식사
- 13:00 ~ 18:00
_____ 시위참가 / 참가단 활동
- 18:00 ~ 19:00
_____ 정리집회 / 전체총화
- 19:00 ~ 20:00
_____ 저녁식사
- 20:00 ~
_____ 각 단위별 / 총화 및 브리핑